

Record Forum

ISSN 1548-3657 (Print) / 2000-19 (Print) / 0001-0101 (Online) / 0001-0101 (Print) / 0001-0101 (Print) / 0001-0101 (Print) / 0001-0101 (Print) / 0001-0101 (Print)

2000 3
가격 5,000원

Nina Kotova

Classic

린다 락카르니를 위한 노래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 75주년 에디션
비에르 블레즈 2000
푸르트벵글러 비로세우기
프리드리히 굴디 명반 12선
푸치니 오페라 <마술피리>
미르타 아르레리치 세르지우 헬리비다케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브린 터켈
토마스 크바스토프

Jazz

21세기를 이끌어갈 베이시스트 10인
맷 베스니 GEFEN 리더작 9선
케니 배런 호아오 잘베르토 알 재로우
D.D. 팩슨 닐스 란 도키 그렉 오스비
존 패티루치 요수케 야미시타 레리 코렐
글로버 워싱턴 Jr. 데텐스 블랜차드
토미 스미스 스티브 레이시 디디 브리지워터

NINA KOTOVA



위를 위해 들어간 예일 대학에 정착을 하게 된다. 지난 일을 회고해보면 그녀는 어떻게 자신이 고령과 고국을 떠날 용기를 갖게 됐는지 스스로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이기 하지만 다시는 결코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따라 다니며 보살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인생이 어떤 거라는 것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죠.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악기와 함께 자라났어요. 막심 켈렌코프나 예프게니 키신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아가 서양 세계로 온 것과는 자본주의 사회 생활에 대한 쓰라린 코훈을 얻은 한때였다. 예일 대학의 학위를 밟는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돈이 떨어지자 그녀는 대학을 중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새로운 행운을 찾아 뉴욕을 떠나야만 했다. 그녀는 입대했던 첼로를 소련당국에 반환해야 했기 때문에 첼로를 갖고 입지도 않았다. 영구권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만한 때도 없었다. 궁지에 몰린 그녀는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된다. 어느 날 그녀는 유명한 코드 에이전시에서 '오른 팔' 역을 맡게 된다.

"모델 일에 발을 들여놓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의 사람들이 나의 개성이나 경력에 대단히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프랑스 패션 잡지인 <글라미>를 위한 사진촬영을 하면서 모델 일은 본격적으로 시작

소련 공산치하의 보릿밭없는 배경을 지닌 부모의 한 어린 소녀가 유명한 첼리스트가 되는 꿈을 꾸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방으로 팔출한 그녀는 끈기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뉴욕에서 그녀는 가난한 거리를 떠나 캐스팅 전문업체를 찾아가 하루아침에 모델로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음악인으로서 정상에 오르는 것이었다. 쿼트악을 하면서 연주하기로 했던 어느 연주자가 계약을 파기하자 그 대타로 그녀는 음악계에 입문하게 되었고, 첼로연습에 몰두하게 된다. 2년 후 그녀는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음반계약은 물론 그녀가 어디를 가든 칭송 받는 유명인이 되었다.

필립스는 27살의 나나 코트바를 성공의 보증수표로 확신하고 붙들었는데, 다른 음반 회사들이 그녀를 놓칠 것을 탄탄할 거라 자신하고 있다. 나나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사랑스러우면서도 놀란한 품미를 가지고 있는데, 뛰어난 외모뿐 아니라 그 연주 솜씨 또한 전사의 연주를 듣는 것 같이 빼어나다. 이러한 그녀의 뛰어난 재능은 대규모로 제작된 음반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흔한 연주는 아니다.

한편 증명해 볼까요? 이것저것 볼 필요가 없다. '나나 코트바'라고 제목을 단 테이프 앨범 하나만 봐도 충분하다. 그녀의 뛰어난 재능은 과히 천부적이다. 이 음반은 한편의 잘 짜여진 이야기처럼 뛰어난 녹음, 최고의 연주실력이 어우러진 음반이다. 이 음반에는 러시아 작곡가인 리흐타르노프, 차이코프스키, 림스카-코르사코프 등의 걸작만 표현력이 넘치는 곡들이 실려 있다. 이 음반에는 나나 코트바가 작곡한 곡도 실려 있는데 볼 모델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무대 위의 풍경'도 선을 보이고 있다. 그녀의 화려하면서도 깊고 감미로운 첼로 소리는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는데, 그 유명한 모스크바 음악학교의 그라이트홀의 어쿠스틱한 분위기가 그 연주 솜씨를 더욱 빛내주고 있다. 이번 음반은 어둑어둑해지는 겨울 오후, 벽난로의 불을 활활 타오르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런 풍경 속에서 500페이지에 달하는 <나나 카라나나>를 읽

으면서 듣고 싶은 곡이다.

그녀는 첼리스트의 자신의 집 창문 밖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조금은 특이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멀려지지 않아요"라고 러시아 특유의 억양이 섞인 말투로 말을 꺼낸다.

그녀는 모스크바에서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어릴 때 첼로 독주회를 가졌던 일과 자신이 작곡한 첫 작품 그리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 가기 전에 연습하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7살에 음악학교 성인 첼로부에서 영평스럽게도 입학이 허가되었다. 나나 코트바는 어린아이였지만 음악에는 신동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음악을 꺼리는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 소질이 쉽사리 드러나지 못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는데, 나나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아주 예술적인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내게 미술을 가르쳐줬는데 형태와 표현법에 관해 가르쳐 주셨고, 내가 5살이었을 때 전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접한 책들도 피카소에 관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내가 첼로를 배우기 시작한 후에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내가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자 어머니는 진정으로 음악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고 격려를 주셨어요."

나나의 아버지는 테볼레이스의 대가인 이반 코트바였다. 그는 어린 나나에게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나의 재능에 대해 후호도 의심하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였어요."

나나가 15살이던 해에 아버지는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 죽고 있는데 이것은 나나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된다. 소련당국은 부친의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태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친의 일거리를 빼앗고 일체의 의료혜택도 주지 않았다. 결국 이런 상황이 그의 죽음을 재촉했다. 나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자신도 소련에 남아있게 된다면 같은 결과를 초래 할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녀는 여행 비자를 신청하여 18세의 나이에 서방으로 탈출한다. 그리고 그녀는 음악학

Record Forum

3/2000

NINA KOTOVA

되었다. 허프링사에 그녀는 세계 최선계에 풀광을 일으켰다. 그녀는 '넉카'라는 이름으로 사일, 이마모도, 구겨, 베르사제, 알파니의 선두 모델이 되었다. 그녀는 스타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가고 싶은 길은 음악의 길이었다. 마침내 친구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혼자서 입대한 악기를 연습했다. 다른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동안 그녀는 작곡에 몰두했다. 모델 일을 하는 몇 년 동안 그녀가 이렇게 두 가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내 자신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던 차에 모델계를 떠나는 계기를 맞게 된다. 1996년 7월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런던의 연주회 주연자리가 마지막 순간에 파기되는 바람에 개최담당자는 그를 대신할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나는 그 기회를 꼭 붙들었다. 그녀는 입대한 첼로로 라흐마니노프의 소나타 Op. 19, 프록코피에프의 소나타 Op. 119와 런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는 자신의 작품인 '무대 위의 풍경',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와 '첼로를 위한 무반주곡'을 연주했다. 이것이 그의 국제 음악계의 첫 데뷔가 되었다. 그 날 쿼트악을 하면서 있는 나나의 연주에 대해 비평가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연주", "비범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연주자"라며 열광했다.

1996년 10월 그녀는 바비컨에서 열거는 첼로연주곡을 연주했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다.

"자클린 드 브르 때문이에요. '그녀는 내게 이상적도 같은 존재요. 그녀가 열거 콘체르토를 연주할 때면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담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재능을 좋아하죠."

이렇게 나나는 후원회의 지원금으로 산 파르나리의 1696년산 'Bear' 첼로를 가지고 세계 연주여행을 다니게 되었다. 그녀는 작년 10월에 카네기 홀에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함으로써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차이코프스키의' '도코르' 반주곡을 연주했는



데 정말 굉장했어요. 관중들이 앙코르를 계속 청해했어요. 마지막에 연주했던 반주곡을 다시 연주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어요."

그녀의 연주 솜씨를 높이 칭송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는 전설적인 첼리스트인 미스피슬리프 로스트로포비치도 있다. "술라바 로 불리는 그는 코트바에 대해 "그녀의 연주 솜씨는 경탄을 금지 못할 정도다."라고 평했다. 이런 칭찬에 코트바도 "그분은 정말 감이로운 분이예요. 그의 연주에는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득합니다. 마치 그 음악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주하는 것처럼 대하세요. 그분이 제가 머무는 도시에 오시면 저는 베행하지 않고 그분 연주회에 갑니다."

만약 나나가 자신의 천부적인 소질에 대해 지금까지 의심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녀의 연주 솜씨가 빛을 볼 수 있었을 것일 뿐 아니라 그 자리를 별로 대단치 않은 다른 연악기 연주자가 대신하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누군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에요. 저는 카네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

든 것은 함께 평가되죠. 무대에서 청중을 때려서키는 힘, 감성, 연주실력등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전 어떤 경우에도 제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도 없어요. 여성이라고 꼭 위축될 필요는 없잖아요?"

전문적인 첼로 연주자로 또한 작곡가로 살아가는 그녀는 자신이 재능계를 떠난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피션을 통해 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게 되었고 내가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도 알게 되었어요. 나의 취향을 개발하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모델이었던 것이 좋은 점도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녀는 자신이 현재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기 위해 최근에는 모델 일에 대해 이에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며 노력하고 있다.

"무대에서 어떤 포즈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의식적으로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얼굴은 어떻게 돌려야 한다든지, 손은 어떻게 흔들어야 한다든지, 머리는 어떻게 흔들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싫어요. 행동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연주를 산만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음악이 항상 최우선이야 합니다."

그녀의 길은 이제는 첼리스트이고 그녀는 그곳의 삶에서 행복을 느낀다.

"이곳엔 메이어는 콘서트 홀이 있어요. 미국의 가장 훌륭한 콘서트 홀 중 하나죠"

이들은 나나와 함께 음반을 제작한 '훌륭한 음악가'들이다. 나나는 모든 것에 대해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녀는 청중들에 대해서도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콘서트에 온 청중들 모두 멋진 분들이예요. 제 연주회에 나이 어린 사람도 많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청중들에게도 음악적 영향력이 널리 퍼져 나간다는 뜻이겠죠. 정말 환상적인 청중들이에요."

나나 코트바에겐 후회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편생을 통해 꿈꾸어 왔던 소망을 이룬 사람이라면 후회를 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

Record Forum

3/2000 17